



조퇴하겠습니다 (Get Out My Way Home 2)

시나리오 문서

유경록 (저녁밤하늘 팀)

문서 작성 일자 (업데이트 내역)

업데이트 기록	
작성 내용	작성 일자
최초 작성	2024. 05. 16

목차

문서 작성 일자 (업데이트 내역).....	2
S#1. 별빛고 운동장 (저녁).....	4
S#2. 별빛고 2-8 교실 (저녁).....	4
S#3. 별빛고 교무실 (저녁).....	5
S#4. 별빛고 운동장 (저녁).....	6
S#5. 퇴근동 길거리 (저녁).....	7
S#6. 퇴근동 길거리 (늦은 저녁).....	8
S#7. 저녁 밤하늘 (저녁).....	9
S#8. 별빛고 2-8 교실 (밤)	10
S#9. 별빛고 복도 (밤).....	10
조퇴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11

S#1. 별빛고 운동장 (저녁)

2명의 남학생이 식당 건물에서 나온다. 두 학생은 멍한 표정으로 운동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성민: (기지개를 켜며) 이야... 오늘 날씨 지인짜 좋다. 그치 않냐?

민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와... 야, 하늘이 원래 저렇게 높았냐?

성민: (한심한 듯 민준을 바라보며) 야, 가을이니까 하늘이 높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과학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무언가 생각난 표정으로) 아 맞다, 나 선도부 일 있어서 먼저 간다. 이따 야자 때 보자.

민준: (건성으로) 어...어영

성민, 말을 끝낸 뒤 학교 건물을 향해 뛰어간다. 민준, 멀어져 가는 성민을 신경 쓰지 않고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커다란 새를 바라보며 민준이 중얼댄다.

민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하... 저게 진짜 자유 아니냐? 왜 내가 밤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거지?

민준, 무언가 결심한듯 결연한 표정으로 학교 건물로 들어간다.

S#2. 별빛고 2-8 교실 (저녁)

교실로 들어온 민준, 칠판 위에 커다랗게 써 있는 급훈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민준: (급훈 액자를 바라보며)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자유로워지고 싶어.

민준, 잠시 고민하다 이내 결심한 듯 교무실로 향한다.

S#3. 별빛고 교무실 (저녁)

민준,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담임이 있는 자리로 걸어간다. 담임,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어 눈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본다.

민준: (당당한 목소리로) 선생님. 저 오늘 야자 못할 것 같습니다.

담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인데. 다음 주 시험이라 야자 빼면 안 된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 (책상에 놓인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며) 안 돼.

민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담임에게 말을 꺼낸다.

민준: (애절한 목소리로) 쌤 제발요. 저 진짜 오늘은 야자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담임: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왜 그러는 건데? 일단 이유나 들어보자.

민준: (잠시 주저하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담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상 위 회초리를 들어 민준의 머리를 때린다.

담임: (화를 내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헛소리 말고 교실로 돌아가. (회초리로 성민을 가리키며) 너는 내가 이따 교실에 있는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준, 회초리로 맞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다. 고개를 숙이던 민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교무실 밖으로 뛰쳐나간다. 담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을 쫓아 뛰기 시작한다.

담임: (고함을 치며) 뛰어가면 못 잡을 줄 알았냐!

S#4. 별빛고 운동장 (저녁)

민준, 학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바라본다. 멀리 건물 안쪽에서 담임이 거친 숨을 고르고 있다. 담임, 민준의 뒤쪽을 바라보며 소리친다.

담임: (크게 소리치며) 거기! 경비 아저씨! 저 학생 좀 잡아요!

민준,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본다. 경비복을 입은 외국인이 민준의 뒤편에서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다.

담임: (짜증을 내며) 아씨, 맞다. 저 사람 외국인이었지. (큰 목소리로) 헤... 헤이! 다니엘! 캐치! 캐치 힘! 배드 스튜던트!

민준, 담임의 목소리를 들은 뒤 경비원을 바라본다. 경비원과 눈이 마주친 민준, 불안감을 느끼고 전력으로 질주한다. 뛰어가는 민준을 본 경비원, 민준을 따라 뛰기 시작한다.

경비: Hey! Student! Stop!

민준, 운동장에 놓인 갖가지 공과 허들을 피하며 경비원을 피해 도망친다. 경비원,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생각난 듯 쫓아가는 것을 멈춘다. 민준이 교문 밖으로 멀어져간다.

S#5. 퇴근동 길거리 (저녁)

민준, 퇴근동 길거리 한복판까지 정신없이 뛰어가다 숨을 고르며 멈춰 선다. 잠시 뒤를 바라본 뒤 안심한 듯 기쁜 표정으로 길거리를 천천히 걸어간다.

민준: (느긋한 표정으로) 어우, 겨우 빠져나왔네... 아니, 외국인은 반칙 아니냐고.

느긋하게 걷는 민준의 뒤로 성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준,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며 경악한다. 성민, 민준이 있는 방향을 향해 빠르게 뚝다.

민준: (당황하며) 재가 왜 여기 있어...? (깨달은 표정으로) 아! 선도부!

성민: (다급한 목소리로) 야! 김민준!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너 잡아오면 담임이 상점 준다고 했어!

민준: (분한 목소리로) 아오, 이 배신자가아아!!

민준, 성민을 피해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성민: 야! 너 나보다 느리잖아!! 괜히 힘 빠지 말고 멈춰!

민준: 너 같으면 멈추겠냐아아아~

S#6. 퇴근동 길거리 (늦은 저녁)

민준의 눈 앞에 뚜껑 없이 열려 있는 맨홀과 흩뿌려진 바나나 껍질이 보인다. 민준이 억울한 듯 소리친다.

민준: (억울한 표정으로) 아니, 그니까 평소에는 길이 이러지 않았다니까~

민준, 체력이 다한 듯 숨을 헐떡이며 땀박질을 멈춘다. 그 때, 민준의 앞에 할머니가 다가온다.

할머니: (인자한 목소리로) 학생, 자유로워지고 싶어?

민준: (당황하며) 네?

할머니: (민준의 손에 무언가 쥐어 주며) 이거 받아. 도움이 될 거야

민준에게 무언가 건네 준 할머니는 빙긋 웃은 뒤 멀어진다. 손에 있는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던 민준. 무언가 생각난 듯 뒤를 바라본다. 성민, 파란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고 있다.

민준: (눈을 질끈 감으며) 에라, 모르겠다!

민준의 몸을 환한 빛이 감싼다. 등 뒤에 날개가 자라난 것을 확인한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빙긋 웃으며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민준: (매우 기쁜 표정으로) 나는 이제 자유다!!

S#7. 저녁 밤하늘 (저녁)

노을 진 하늘 위, 민준이 자유롭게 날고 있다.

민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거였나? 이거 위해 여태까지 억눌려 살았던 거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민준. 구름에 부딪히고 더 높이 날아가는 와중에 민준의 날개는 점차 헤져간다. 민준, 전보다 작아진 날개의 크기를 눈치채고 놀라서 말한다.

민준: (당황하며) 어...? 날개가 왜 이러지?

순간, 날개가 사라지며 민준이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민준, 발버둥치며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민준이 땅과 맞닿았다.

S#8. 별빛고 2-8 교실 (밤)

여전히 거대한 굉음이 민준의 귓가에 맴돌고 있다.

민준: (신음을 내며) 으으... 떨어지기 싫어... 살려줘...

담임, 옆드려 중얼거리는 민준을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회초리로 책상을 두드린다.

담임: (황당한 표정으로) 야! 일어나! 이 짜식이 야자 시간에 쳐 자고 말이야!

민준, 갑자기 들리는 담임의 목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어안이 병병한 듯 멍하니 서 있다.

담임: (팔짱을 끼며) 하이고? 이거 완전히 폭 주무셨나 보구만? 김민준, 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민준, 정신이 든 듯 멍쩍은 표정으로 교실 밖으로 향한다.

S#9. 별빛고 복도 (밤)

민준, 혼자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민준: (억울한 목소리로) 하...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했는데. (기지개를 켜며) 으아~ 야 자하기 싫다아~

카메라, 창 밖 밤하늘을 비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위 커다란 새가 학교 주변을 빙글 돈 뒤 멀어져간다.

조퇴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조퇴하겠습니다 게임 내에 삽입될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보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